

## 미술가 최재은, DMZ 작품으로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 초청

25 February 2015 | 김미리 기자

설치미술가 최재은(63) 작가가 올 5월 열리는 제15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초청받았다. 최 작가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일본 건축가 반 시게루(59)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안에 공중정원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몽(夢)의 정원/드리밍 오브 어스(Dreaming of Earth)'를 전시할 예정이다. 건축전 본전시에 한국 작가가 초대된 것은 4년 만이다. 2010년 서도호 작가와 서울호·김경은이 운영하는 서아키텍스가 참여했고, 2012년엔 건축가 승효상이 참가했다.

'몽(夢)의 정원'은 DMZ 생태계를 보호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지상 3~6m 높이에 대나무와 천연 재료를 이용한 총 15km 길이 공중정원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다.

### 미술가 최재은, DMZ 작품으로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 초청

설치미술가 최재은(63) 작가가 올 5월 열리는 제15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초청받았다. 최 작가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일본 건축가 반 시게루(59)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안에 공중정원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몽(夢)의 정원/드리밍 오브 어스(Dreaming of Earth)'를 전

시할 예정이다.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한국 작가가 초대된 것은 4년 만이다. 2010년 서도호 작가와 서울호·김경은이 운영하는 서아키텍스가 참여했고, 2012년엔 건축가 승효상이 참가했다.

'몽(夢)의 정원'은 DMZ 생태계를 보호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지상 3~6m 높이에 대나무와 천연 재료를 이용한 총 15km 길이 공중정원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다.